

# 지혜의 말씀

불기 2567년 6월 / 통권 508호



대한불교조계종 **진행태광사**



## 법구경 (法句經)

019

아무리 경전을 많이 외울지라도 이를  
실천하지 않는 방탕한 사람은 남의 소만  
세고 있는 소물이꾼일 뿐 참된 수행자의  
대열에 들 수 없다

020

경전을 조금밖에 외울 수 없더라도 진리대로  
실천하고 욕망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바른 지혜와 해탈을 얻고 이 세상과 저 세상에  
매이지 않는 이는 진실한 수행자의 대열에  
들 수 있다



## 목 차

### 시와 불교의 만남 · 2

### 생각의 터 · 4

아이들의 공양 / 윤성스님

### 사자단상(四字斷想) · 8

시절인연(時節因緣) / 무경스님

### 관음전불사 권선문 · 12

### 설담장학회 · 13

### 대광사 6월 법회 및 행사 · 13

### 알림마당 · 14

고맙습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안내

템플스테이 신축관(휴심당) 완공식 안내

대광사 산사음악회 안내

대광사 템플스테이 안내



표지그림/원성스님

● 발행처 / 대광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03(태백동)

Tel. 055) 545-9595

홈페이지 / ① 대광사

② [www.daegwangsa.or.kr](http://www.daegwangsa.or.kr)

● 발행인 · 편집장 / 무경스님

● 주 간 / 선화심

● 편집 · 인쇄 / 디자인스프링





# 아이들의 공양

운성스님 / 대광사 회주

두 아이가 흙으로 집을 만들고 그릇을 만들며 놀이를 하고 있었다. 큰 아이 이름은 '위자야'고 작은 아이 이름은 '자야'였다.

마침 부처님께서 근처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공양 올리고 싶은 두 아이는 있는 것이 흠뻑이라서 흙을 곱게 손질해서 공양드렸다.

키가 작은 자야가 손이 닿지 않아 키 큰 위자야가 옆드리고 그 위에 올라서서 자야가 흙을 공양드렸다.

"지금은 비록 흙을 공양 올리지만, 다음에 공양드릴 때는

천지를 덮을 만큼 많은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했다.

아이들 흙 공양을 흔쾌히 받으신 부처님께서는 "이 아이들은 여래에게 공양 올린 공덕으로 다음 생에 큰 나라의 왕이 되어 큰 공덕을 이루게 되리라."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로부터 300여 년이 지난 뒤 흙 공양 올렸던 작은 아이 자야는 '아소카'로 태어나 인도 전역을 통일하는 인도 최초의 통일 국가를 이루고 인도 역사상 가장 찬란한 문화와 국력을 이룩한 왕이 되었다.

아소카에 대한 인도인들의 사랑과 존경은 2천 수백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서 '언젠가 다시 태어나 인도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란 구세주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의 업적이 얼마나 대단했으며 그에 대한 인도인들의 기대와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다.

아소카는 불교가 세계적 종교로 발돋움하는데 절대적 역할을 한 사람이다. 중국, 한국, 일본, 동남아 전역은 물론,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집트, 유럽에 이르기까지 포교사를 보내 불법을 전하게 했다.

인도 전역의 부처님 유적지를 순례하며 유적지마다 사자머리가 조각된 큰 돌기둥을 세워 부처님 머무셨던 장소임을 표시하고 뜻을 기렸다.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면한다는 명문을 돌기둥에 새겨두기도 했다.

이때 세워진 돌기둥이 팔만 사천 개였다는 다소 과장된 기록이 있기도 한데, 이는 아쇼카가 그만큼 적극성을 보였다 는 증거이며 정성을 다했다는 표증이기도 하다.

그는 처음 힌두교 신자였지만 인도 전역의 작은 나라들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숭한 전투를 치르며 수 많은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죄의식을 깊게 느끼고, 더구나 그의 이복형제들 99명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죄의식을 뼈저리게 참회하며 불교에 귀의하고 부처님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그의 이복형인 '수시마'의 아들이자 자신의 조카이기도 한 '니그로다' 스님에게서 법구경 말씀을 듣고 부처님 가르침을 알게 되면서 크게 참회하는 마음이 생겨 불교에 귀의하게 되었으며 이후 많은 선정을 베풀고 복지 국가를 만들어 간다.

실제 나라의 헌법 제 일조를 “부처님 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고 만들기도 했다. 이 조문을 돌에 새겨서 관리들이 늘 보게 했으며 자신도 물론 수시로 보았다고 한다. 조문이 새겨진 돌은 지금도 인도 국립박물관 마당에 전시되어 있다.

기원전 261년에 불교에 귀의한 아쇼카는 "부처님 가르침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신념으로 통치하며 '마우리아 제

국' 전역에 약초를 재배하여 나누게 하고, 정신병원, 동물병원, 고아원, 양로원 등을 개설해 국민 복지를 시행했다.

당시로선 매우 획기적인 통치 형태였다. 현대 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통치 스타일이다. 더구나 병원을 세워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하고, 짠 이자로 돈이나 곡식을 빌려주며 우물이나 댐을 만들어 용수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대승 보살 정신으로 국가를 경영했다. 제국주의 전제 정치에서는 어디에서든 볼 수 없는 복지국가였다.

아소카의 왕업은 부처님과의 인연으로 시작된 것이어서 대승 보살 정신이 국가 경영에 도입될 수밖에 없었다. 대승 보살 정신의 복지 국가는 이미 2천 수백 년 전에 인도에서 아쇼카에 의해 시작되었던 것이다.



## 시절인연(時節因緣)

무경스님 / 대광사 주지

사람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하늘이 하는 일이 따로 있다. 농사를 짓는 것이 사람의 일이라면 비를 내리고 곡식을 무르익게 하는 것은 하늘의 일이고, 사업을 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라면 이를 번영케 하는 것은 하늘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저마다 타고난 복이 있고, 살면서 그 복으로 희로애락(喜怒哀樂)을 누리게 된다. 복이 많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성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복이 없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실패해서 화가 나거나 서글프게 된다.

사람의 타고난 복은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쌓은 복을 돌려받는 것이다. 그래서 전생에 복을 많이 쌓았다면 현생에 비록 나쁜 짓을 했더라도 복을 다 까먹을 때까지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다면 현생에 비록 착한 일을 했더라도 죄값을 다 치를 때까지는 어렵게 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비정하게 들리겠지만 세상의 이치는 인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전생이 궁금하면 자기가 지금 겪는 일을 돌아보면 되고, 다음 생이 궁금하면 자기가 지금 하는 짓을 돌아보면 된다’ 고 하셨다.

또한 사람의 타고난 복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대사(一大事: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의 도움이 필요하다. 불교에서는 하늘의 도움을 ‘명훈가피(冥勳加被)’라고 하는데, 이는 ‘티나지 않게 은근히 돕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의 도움을 받아도 ‘우연’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꽃이 피기 전에는 먼저 싹이 나고, 해가 뜨기 전에는 먼저 여명이 생기듯이, 하늘이 사람의 일을 도울 때는 먼저 세상에 신비한 조짐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길상(吉祥)’이라고 한다. 이 길상의 대표적인 예가 어려운 일들이 신기하게도 술술 잘 풀리는 것이다. 때문에 사람들은 하늘의 도움을 받을 때 자신의 의지와 능력을 뛰어넘어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지금 대광사에서 일어나는 조짐들도 그렇다.

필자가 소임을 시작할 당시 대광사는 두가지 큰 난제(難題)를 안고 있었다. 하나는 대광사 내 불법건축물 면적을 양성화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코로나로 발목 잡힌 일들을 정상화하는 것이었다.

특히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일은 얽힌 실타래처럼 다양한 문제들로 복잡하게 꼬여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문제를 필자 혼자 푸는 것은 불가능 했다. 하지만 때마침 정말 ‘운’ 좋게 필자의 소임 시작과 함께 대광사를 옥죄던 자연공원법이 풀렸고, 때마침 정말 ‘운’ 좋게 직접 발로 뛰며 도움을 주실 귀한 분들을 소개 받았으며, 때마침 정말 ‘운’ 좋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면서 마침내 양성화 시킬 수 있었다.

사실 필자는 난관을 마주할 때마다 좋은 일들이 연달아 생겨나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잠시지만 한동안은 남들의 말처럼 ‘내가 정말 복이 많나?’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착각은 오래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필자의 의지와 능력을 넘어선 알 수 없는 거대한 힘이 대광사의 모든 과업을 풀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하늘이 돕지 않았으면 풀 수 없었을 만큼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과정에는 많은 기적이 필요했다. 그래서 한편으로 궁금했다. 이러한 좋은 조짐 끝에 실현될 필연은 무엇인지 말이다. 그리고 필자는 이번 5월 초하루 법회 때 비로소 그동안 대광사에서 있었던 크고 작은 기적들의 흐름이 어디를 종착역으로 향해가는지 알 수 있었다. 바로 관음전 불사였다.

사실 필자는 관음전 불사를 전혀 할 계획이 없었다. 그저 불법건축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혹시 10년 뒤에 지어질지, 20

년 뒤에 지어질지 모르는 관음전 부지의 용적률을 확보하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구색을 맞추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휴심당(템플스테이 체험관)을 짓는 과정에서 절 터 왼편에 자란 나무들을 벌목해야 했고, 벌목꾼이 들어 온 김에 별 생각 없이 대웅전 뒤편과 관음전 터의 나무들도 함께 베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나무토막이 생겨나면서 이를 옮기기 위해 포크레인을 불러야 했고, 포크레인이 일을 너무 빨리 끝내는 바람에 돈이 아까워서 관음전 터까지 그냥 정비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잘 정비된 터를 여러사람이 보게 되면서 여기저기서 ‘언제 관음전을 짓느냐?’ 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불자님 몇 분은 미리 관음전 불사금까지 내시게 되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빨리 짓자’ 하고 불사가 시작된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물 흐르듯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필자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불자님들의 정성을 모으고 있는 중이었다.

이처럼 지금 대광사 관음전 불사는 하늘이 먼저 일을 벌리고, 사람이 뒤따르는 신통방통한 불사이며, 다른 어떤 불사보다도 많은 복으로 되돌아오는 불사이다. 그러므로 불자님들께서도 하늘이 돕는 이 거룩한 불사에 동참하셔서 세세생생 마르지 않는 복덕을 타고나시기 기원해 본다.

# 「관음전 불사 권선문」

대광사가 현재 위치에 산문을 연지 벌써 40여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간 주지 스님도 운성, 탄경, 자경, 서경, 무경 스님을 지나며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 여러 중창불사를 했고, 사회적 역할을 하며 부처님 법 전하는 일에 혼신을 다해왔습니다. 금년에는 그동안 정체되었던 관음전 건축 부지 문제를 해결하여, 오랫동안 사부대중이 염원하시던 관음전 불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웅전 오른편 9평 규모로 지어질 관음전은 관음의 소리를 들어 자기 내면을 깊이 성찰하는 '자성의 공간'이자, 거룩하신 관세음의 모습을 닮아지는 '기도의 전당'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려운 시기임을 걱정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어 주저하기도 했지만, 어려운 때 일수록 더욱 가피를 받고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종교인의 본분이라 감연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지어질 대광사 관음전이 불자님들의 기도와 자성의 수행도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67(2023)년 2월

회주 설담운성 · 주지 무경 합장

관음전 불사 동참계좌  
수협 2010-0909-2481(대광사)

## 템플스테이 신축관(휴심당) 완공식 안내

- 불기 2567년 7월 2일(양력)
- 보름법회 이후 휴심당 앞마당



## 대광사 6월 법회 및 행사

- ◇ 5월 27일 :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오전 10시
  - ◇ 6월 3일 : 보름법회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6월 10일 : 산사음악회 오후 6시 대웅전 앞마당
  - ◇ 6월 18일 : 초하루기도 입재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6월 20일 : 초하루기도 회향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총무소 ☎055-545-9595

### 「설담장학회」

대광사에서는 매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창원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대광사 각 신행단체와 일반 불자님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정성이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과 응원이 될 수 있으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설담장학회에서 '설담(雪潭)'은 회주 운성 큰스님의 호이며, 설담장학회 통장으로 입금된 모든 금액은 청소년 장학금으로만 쓰일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설담장학회 계좌번호  
수협 2010-0975-0679



# 대광후원회

(2023.4.19.~2023.5.16)

송성수 10,000	조우현 10,000	김병문 20,000	이병정 60,000
황두관 10,000	강성진 10,000	이인숙 20,000	배동환변호사 50,000
김태연 10,000	홍승운 20,000	구자민 30,000	김재우 100,000
박미애 10,000	윤숙희 20,000	조한분 50,000	쥬카텍hil딩스 300,000
조인우 10,000	변창인 20,000	정대식 50,000	

◆ 금식소 후원 계좌 : 농협 355-0545-9595-03 대광사  
수협 921-61-001338 대광사

※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고맙습니다

### ♥ 군법당 후원(4.19.~5.16)

후원회 10만원

### ♥ 지혜의말씀 후원(4.19.~5.16)

양재봉 1만원 / 송민기 1만원

### ♥ 설담장학회(4.19.~5.16)

주지스님 10만원 / 법계성 100만원 / 운영위원회 50만원 / 시라다도반 30만원  
반야찬불단 30만원 / 대광불대동문화 30만원 / 최덕희 10만원 / 박성준 10만원  
호천장 10만원 / 김연희 10만원 / 최경순 5만원 / 조정희 5만원 / 진병천 3만원  
김순남 1만원

### ♥ 관음전(4.24.~5.17)

- ◇1천만원 - 주지스님 한인철    ◇5백만원 - 조형식 박정자 한지민
- ◇3백만원 - 박춘수    ◇2백만원 - 대광불대동문화
- ◇1백만원 - 운영위원회(정정) 반야찬불단 시라다도회 박차생 서정훈 서영만  
서영철 강동민 강태영 성용기 홍장명 홍덕신 변지오 주영돈 전홍준 허점자  
김미화 윤순현 최향식 김성민 손향은 반효선 공상섭 공인혁 공강혁 공민준  
김종열 조숙희 표진수 전성탁 최미영



- ◇50만원 - 염불봉사단 박승서 박주용 이병정 이정윤 김상필 최무환 최승환  
오대환 김영숙 황상선 호천장 최흥규 박인주 박지홍 이재숙
- ◇30만원 - 불대17기 불대19기 김정수 김수환 배현지 최경순 조필자 제영길  
제승헌 제성혁 김정숙 장선옥 윤명준 동우영 김상필
- ◇20만원 - 김복준 윤경수 배복식 이지윤 최금순 이봉숙
- ◇10만원 - 송종화 송성수 송민기 김인철 배가운 이승민 김옥남 김정하 최종희  
김영부 김명돌 전민규 전해진 홍예현 엄종훈 김혜영 엄태희 보현회 홍기준  
김순희 명정임
- ◇5만원 - 김솔희 임소라 김보현 박미정 김영숙 이가려

[고맙습니다]

김상필(은암)거사님께서 생수, 음료 보시해주셨습니다.

##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 불기 2567년 5월 27일(양력) 오전 10시
- 대광사 대웅전 앞마당
- 금년 부처님 오신날에는 비빔밥을 드립니다.

제23회 청소년과 함께하는

## 대광사 산사음악회

- 불기 2567년 6월 10일 오후 6시
- 대광사 대웅전 앞마당

## 산사순례

- 일시: 6월 24일 오전 7시 진해역 ■ 장소: 법주사
- 문의나 신청사항은 종무소로 연락바랍니다.

## 대광사 템플스테이

### ■ 여행다는 달 안내

- 예 정 : 6월 한달
- 참가비 : 3만원
- 예 약 :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가능

\*불교문화사업단주관 행사이므로 홈페이지에 오픈되어야 참가가능합니다\*

### ■ 프로그램 :

# 남 용서하는 남

- 운 영 : 휴식형
- 참가비 : 1인당 4만원  
(미취학 ~ 초등 : 무료, 청소년 : 2만원)



### 온라인 입금 안내

경남은행 : 518-07-0096440	예금주 - 대광사
수 협 : 921-61-000421	예금주 - 대광사
농 협 : 821145-51-042833	예금주 - 대광사
국민은행 : 654301-04-231813	예금주 - 대광사

대한불교조계종 **진행대광사**